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18주일

2024년 8월 4일 / 제649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손영채 제1독서 석근수 제2독서 한수현 / 입당 502 봉헌 221, 512 성체 166, 155 파견 458
Narrator Jun Vincencio 1st Reader George Hegarty 2nd Reader Kate Lim

입당송 | 시편 70(69),2,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 탈출 16,2-4.12-15

화답송 | 시편 78(77),3과 47ㄹ.23-24.25와 54(㉔) 24ㄴ 참조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 에페 4,17.20-24

복음환호송 | 마태 4,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요한 6,24-35

영성체송 |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8월 04일	주일학교 NO	Fr. Peter
08월 11일	주일학교 NO	Fr. Jim
08월 18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8월 25일	주일학교 YES	Fr. Theo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각과 살아있는 빵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탈출 16,3)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과 고기에 대한 그리움은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광야의 가혹한 환경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장소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순례는 하느님께 대한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광로에도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있듯, 망각과 하느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그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하느님 안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신약의 하느님 백성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따라온 군중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한 6,28)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 하느님의 백

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어느새 자리하거나,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를 체험했던 기억을 망각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제대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성체를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 세상의 거친 생각과 환경으로 지치고 힘겨워 주님을 멀리하고자 할 때,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제단으로 인도하십시오.”

윤정한 바오로 신부 | 제17 강서지구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제증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때 고백한 신앙을 미사 중에 다시 고백하며 내가 진정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신경”, 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때 단순히 입으로만 암송하고 넘어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잘 담겨 있습니다. 라틴어 사도 신경을 보면 “Credo in Deum.”이라고 시작하는데(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경우 Credo in unum Deum) 이 표현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신경의 처음에 “Credo Deum”이라고 하지 않고 “Credo in Deu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와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는 ‘하느님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분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 활동’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즉,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 사랑의 손길과 은총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두 신앙 고백들(사도 신경,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당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이 어떻게 계속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면서 우리 믿음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선사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과정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그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례 안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 또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자는 그의 삶 전부를 그분과 같이 살도록 힘써야 한다. 진실로, 지고한 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덕스런 삶이다”(Opera omnia, II 참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감으로써 내 삶의 숨결과 몸짓 하나하나가 기도이자,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DRE # 01983236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8월 주요 전례 일정

- 8월 1일(목) - 4일(주일): 서중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 8월 10일(토): 제28차 북가주 성령 대화(새크라멘토 한인 성당)
- 8월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 8월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기념 작은 음악회
(현악 4중주, 대축일 저녁 미사 후 30분간 진행)
- 8월 17일(토): 주일학교 오프닝 행사
- 8월 25일(주일): 주일학교 개학
- 8월 25일(주일):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새 신부님 첫미사(오전 9시)
- 8월 31일(토): 오클랜드 교구 다문화 축제 미사
(오전 11시, 오클랜드 주교좌성당)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장소: 8월 4일(주일), 오전 11시·Room A
- 9월에 있을 바자회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니 모든 반장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4 - 25년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 첫 모임: 10월 6일(주일), 오전 11시
- 교리기간: 10월 6일(주일)부터 2025년 4월 13일(주일)
- 세례식: 2025년 4월 19일(토), 파스카 성야 미사 중
- 신청: 사무실(925-871-9746)
- 문의: 신자부장 유연호 안나(612-849-0873)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 주제: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1,10)
- 일시: 8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점심 및 저녁 식사 제공, 베이비 시팅 제공)
-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 지도신부: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주최: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참가비: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신청·문의: 박민숙 엘리사벳(925-858-7037)
- 교통편: 다음과 같이 무료 버스를 운행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출발: 본당 앞, 오전 7시 10분
* 귀가: 행사 종료 후 교통편도 제공합니다.
* 버스 이용료: 무료 (기도회에서 부담)

트라이밸리 재속프란치스코회 8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8월 11일(주일), 오후 1시·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925-708-8510)

성모 승천 대축일 기념 작은 음악회(현악 4중주)

- 일시장소: 8월 15일(목) 저녁미사 후·소성당
- 소개: 북가주 <칸타빌레> 합창단과 함께 하는 칸타빌레 챔버 앙상블의 연주로 성가와 편안한 클래식 곡들을 나눕니다.
- 프로그램
 1. 엘가 - 사랑의 인사(Salut d'Amour)
 2. 바흐 - G선상의 아리아
 3. Come Thou Fount
 4. 파헬벨 캐논(Pachelbel's Canon)
 5. 김기영 - 평화의 기도
 6. 모짜르트 - 아베 베룸(Ave Verum)
 7. 카치니 - 아베 마리아(Ave Maria)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14	\$234	\$3210	\$100	\$110	\$5168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국진(7-9), 김성치(7), 배정수(7-12), 성호승(8), 송형철(7), 이정(7-12), 이태원(7), 장두만(7,8), 조세형(7,8), 최두은(6,7), 함종식(8), 홍석제(7)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국진(7-9), 김성치(7), 성호승(8), 이태원(7), 함종식(8), 홍석제(7)

Bishop's Appeal

김국진(7-9), 김성치(7), 성호승(8), 이태원(7), 함종식(8), 홍석제(7)

감사헌금 이영희

8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정치 지도자들

For political leaders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면서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political leaders be at the service of their own people, working for integral human development and for the common good, especially caring for the poor and those who have lost their jobs.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